

한국언론학회 장학금 최다 수여

방송영상학과, GS SHOP 콘텐츠 리더 장학금 많은 수상자 배출



▶ 방송영상학과 학생들이 촬영하는 모습



▶ 촬영실에서 촬영 중인 방송영상학과 학생들

지난 9월, '제5회 GS SHOP 콘텐츠 리더 장학금' 공모에서 방송영상학과 학생 3명이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한국언론학회가 방송영상 분야에 재능을 가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주최한 본 공모에서,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영남대와 나란히 최다 수상의 명예를 획득했다. 동서대 장학금 수상자는 서지오, 신현호, 조은빛 학생이다.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동서대 방송영상학과는 커뮤니케이션 학의 과학화, 언론과 영상산업의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체의 지대한 영향을 파악해 방송매체 및

영상산업분야 전문 인력의 시대적, 사회적 역할을 중시해 영어와 컴퓨터 과목을 필수화, 논술 및 사고능력의 배양을 기본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 이론을 기초로 하는 실습교육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의 방송 및 영상 산업분야 진출을 돕고 있다. 대중매체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포함해 제작 제작에 대한 이해와 실기능력 배양, 방송인론 제작사와의 현장 실무교육, 5대 전공능력 실천을 위한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동서대는 이번 편만이 아닌 이전부터 GS SHOP 콘텐츠 리더 장학금을 수여받은 전적이 있다. 제4회에선 1명, 제3회에선 2명, 제2회에선 1명, 제1회에선 4명이 수여받았다. 본 공모는 방송영상과 관련된 분야의 우수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배움의 기회를 제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장학금의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 급진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성된 장학금 공모는 방송영상 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인재 양성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GS SHOP 관계자는 "방송영상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송영상 분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학, 대학원에 인내된 본 공모는 세부 선발기준에 따른 심사로 선발이 진행됐다. 선발 기준은 지원 학생의 소득 범위, 학점, 방송영상 분야에서의 대내외 수상실적, 자기소개서 등을 고려했다. 전국 대학의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적 균형 선발

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 시점에 방송영상/제작 관련 학과(부)에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선출했으며,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발 과정 끝에 이화여자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5개 대학 총 24명의 대학생이 수상의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최다 수상의 영예에 따라, 동서대학교 홈페이지를 포함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제공하는 OTT 서비스인 'MOCA'에서도 GS SHOP 콘텐츠 리더 장학금 공모 수상자들에게 '본교의 이름을 빛내준 서지오, 신현호, 조은빛 학생에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며 축하인사를 건넸다. 수상자들에게 1인당 150만 원가량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대학원생의 경우엔 2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신현정 기자 huujk369@gmail.com

제20회 울산옥외광고 수상

디자인대학, 금·동상 포함한 각종 상 휩쓸다



▶ 제20회 울산옥외광고 대상전 수상자

제20회 울산시 옥외광고 대상전에서 동서대 디자인대학 학생들의 작품이 학생부 최고 상인 금상, 동상을 포함한 각종 상을 휩쓸었다. 작년에 이어 이번 연도에도 수상 싸움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저마다의 독자적이고 개성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개발로 옥외광고 수준을 높이고, 우수 광고물 전시와 홍보를 통해 거리 간판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중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울산시가 진행한 공모전에서 동서대 학생들의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부 창작광고물(모형, 도안), 기설치 광고물(도안)과 학생부 창작광고물(도안) 등 2개 분야로 구분해 총 150개 작품을 접수했다. 그중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선출됐다. 수상자는 총 4명으로 김범창 학생은 금상(울산시정상 150만 원)을 차지했으며, 조재영·고강원·이주연 학생은 동상 등을 수상했다. 이들 수상 작품은 디자인 대학 그래픽디자인부트 '콘셉추얼플랜닝' 수업(지도교수 이진호)을 통해 완성됐다. 수업과 공모전이 연계돼 배출된 결과물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작광고물(도안) 분야에서 최고 상인

금상을 차지한 김범창 학생의 작품은 '현대인을 위한 우리 동네 곡식 장터, 위드미(with米)'이다. 곡물 섭취가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곡물 지역 시장을 결합해 한국적인 느낌을 최대한 현대적으로 깔끔하게 연출하고자 했다. 쌀을 뜻하는 한자인 미(米)를 영어와 접목시켜 '쌀과 함께'라는 뜻을 자아냈다. 로고 또한 한자를 중심으로 디자인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알렸다. 이 덕분에 전달성과 주제 면에 대한 차별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본 작품의 특징은 실제로 상품과 광고 건물에 이를 적용시킨 것처럼 작업했다. 대표 로고를 종이 가방에 접목시켜 실용성을 돋보이게 하거나, 지하철 전광판 또는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대입해 옥외광고라는 목적을 강조하는 등 작업물에 있어 독창성이 부각됐다. 김범창 학생은 "브랜드의 콘셉트가 명확해서 쉽게 쉽게 작업했고 재미있게 디자인했다. 디자인 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돼 너무 기쁘다."라며 "같은 수업을 들으며 수고한 동료 학우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신현정 기자 huujk369@gmail.com

부산연극제서 최우수

B급 로터리의 '저널리즘', 연극제 장식



▶ 제38회 부산연극제 시상식

제38회 부산연극제 경연에서 동서대 임권택 영화예술대학 연극과 학생들이 최우수 작품상, 연출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 이번 부산연극제는 부산연극협회 송병태 회장이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그래서 작품에 창작 회곡 제한 규정을 풀고 1차와 2차에 걸쳐 엄격한 예심을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올해 부산연극제 지원을 공모해 5팀의 인정을 받았다. 작품에 대한 PPT 검사, 연출 의도, 조명, 의상 등 전체적인 구도가 잡혀있는지 등을 심사해 최종 2팀이 선정됐다. 올해 부산연극제에는 극단 B급 로터리의 '저널리즘'과 극단 이야기의 '적산가족' 2편이 무대에 올랐다. 극단 B급 로터리의 '저널리즘'은 동서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주축을 이뤘다. 현지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는 유명 극단들과 배우들이 대거 참여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극단 B급 로터리의 '저널리즘'(김경민 작, 연출)은 1차 사전 예심 통과 및 2차 결선에 참가하여 최우수 작품상(연극 '저널리즘')과 연출상(연극과 4학년 김경민), 신인 연기상(연극과 08학번 권상우, 연극과 08학번 김대현)을 수상했다. B급 로터리의 '저널리즘'은 국내 최대 연극기반 'LTBC' 출신 김병길 감독이 극우총리 후보에 오르며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 김병길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 후보 지지를 분석까지 하는 보도국 풍경은 흡사 선거

캠프를 방불케 한다. 은퇴한 기자들이 만든 소규모 언론사 '여의도 오늘'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역사 왜곡 발언 등을 파헤쳐자 LTBC 보도국은 소위 말하는 '몰타기, 여론 물리기 기사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애쓴다. '저널리즘'은 3년 전에 초연한 작품이다. 직접 극본을 쓴 김경민 연출가는 "초연 때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났는데 내용을 더 늘리고 완성도를 높여서 이번 연극제에 출품했다. 배우들에게 자연스러운 기자의 모습을 연기하도록 주문하고 대사에 있어서도 현장감을 살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극단 B급 로터리의 연극 '저널리즘'은 언론기관 기자들의 역할에 대한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널리즘의 본래 의미는 '활자나 전파를 매체로 하는 보도(報道)나 그 밖의 전달 활동, 또는 그 사업'인데 현 사회는 저널리즘 그대로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이는 현대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질인 기업성이 언론의 역할을 흐리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대 저널리즘을 구성하고 있는 각 미디어 기업은 방대한 자본과 설비를 소유하고 거기에 자본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다. '저널리즘'은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시점에서, 참된 언론과 기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해준다. 신현정 기자 huujk369@gmail.com

2020국제캐릭터콘텐츠 공모전 입상

광고 루트 학생들, LINC+사업단 지원받아 쾌거



▶ 2020 국제캐릭터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동서대 디자인대학 광고 루트 학생들이 '2020 국제 캐릭터 콘텐츠 공모대전'에서 금·은·동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0국제 캐릭터 콘텐츠 공모대전'이란 한국 캐릭터 디자이너 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후원하는 21년의 역사를 가진 규모가 큰 공모전이다. 수상자는 총 세 명으로 서정민 학생은 금상을, 조호성·박서영 학생은 은상을, 김보경 학생은 동상을 수상했다. 훌륭한 작품들은 광고 루트 기초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제작된 것으로 동서대학교 LINC+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금상으로 선출된 이모티콘 '고상'은 캠퍼스 교래상어를 키워드로 삼았다. 눈썹과 송곳니를 달고 다니는 캠퍼스 교래상어 '고상'은 아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는 모든 학생을 대변했다. 교래상어는 교래인지 상어인지 헷갈린다는 현상이 강한 동물에게 고민이라는 주제와 잘 어울려졌다. 교래상어는 순순한 성격과 외형을 가졌으나 바다의 공포라고 불리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학생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보였다. 현실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공감을 자아내고자 한 본 캐릭터는 이모티콘으로 표현했다. 은상을 수상한 '동글했지'는 찹쌀떡 같은 고슴도치를 가지고 캐릭터화 했다. 기

분파라는 설정을 통해 각종 감정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었다. 또한 공동 은상인 '넌카의 하루'는 알비노 펠리트로, 친구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항상 의문을 품고 살았다는 고슴도치였다. 성인이 되는 날 낚는 가족, 친구들과 이별하고 자신과 같은 친구를 찾으러 떠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 톨 줌쇼'와 같은 대사가 이모티콘에 접목됐다. 본 수상작은 '카카오톡' 사용 예시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차별성이 강조됐다. 동상 수상작인 '전방지속 동물들과 숲의 요정 연두'는 숲속을 지키는 어린 수호신 연두와 좌충우돌 전방지속 네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과 얽히는 사람들과, 그런 삶을 살아가며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하는 모든 학생을 대변했다. 교래상어는 교래인지 상어인지 헷갈린다는 현상이 강한 동물에게 고민이라는 주제와 잘 어울려졌다. 교래상어는 순순한 성격과 외형을 가졌으나 바다의 공포라고 불리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학생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보였다. 현실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공감을 자아내고자 한 본 캐릭터는 이모티콘으로 표현했다. 은상을 수상한 '동글했지'는 찹쌀떡 같은 고슴도치를 가지고 캐릭터화 했다. 기

'간호학 학사학위프로그램' 획득

간호학과, 2회 연속 인증 얻어



▶ 실습 수업을 수강하는 간호학과 학생들

동서대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20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간호교육의 질적 성장과 간호 학생의 성과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여건, 교육성과 등이 국가, 사회, 간호 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 인정하는 제도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첫째, 프로그램 학습 성과 중심의 교육체제를 통해 졸업 학생이 학과가 설정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둘째, 간호교육기관 운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셋째,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간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인증은 전국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비전과 운영 체계, 교육과정, 교육성과, 학생, 교수 등 6개 영역 14부문 28개 항목에 대한 서류평가와 방문평가로 인증기간을 부여할 만큼 여러 방면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채택한다. 동서대는 2015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5년 인증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기간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로 총 5년이다. 신현정 기자 huujk369@gmail.com

동서대 간호학과는 2008년 간호학과 설치인가를 받은 이후 기독교 인성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서대학교의 건학 이념의 특성을 살려 지난 13년 동안 교과과정을 운영했다. 다양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근거 중심의 전문 지식 및 실무기술 함양을 위해 교수진과 학생 간의 활발한 교류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첨단 실습 기자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랩, 특수 임상현장에 대한 실습환경 및 산학협력 학습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간호사 면허를 비롯하여 미국 간호사 면허, 나아가 곡 및 해외 의료기관의 임상간호사,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국가보건의정책 분야의 전문가, 건강 관련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등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동서대는 2015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을 획득한 전적이 있다. 이후 꾸준히 간호학사를 배출했다. 2018년에는 간호교육 인증 중간 평가 '유지', 2019년에는 간호학과 20년 증원으로 편제정원 80명이 증원되는 등 발전을 이룩했다. 박정화 간호학과 책임교수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학과 교수들과 함께 질 높은 간호 교육과정과 여건을 조성해서 전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현정 기자 huujk369@gmail.com

관광학부, '학과별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선정

9월 3일부터 본격적 운영 시작



▶실용 중심 교육 현장

부산시 4년제 대학 가운데 우리 대학 관광학부가 부산광역시로부터 '2020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관광학부 호텔경영학 전공에서는 업계에서 필요한 운영 능력과 관리 기술을 제공하는 등에 초점을 두어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9월 3일 이후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대다수의 호텔들이 사용하는 PMS(Property Management System-호텔에서 사용하는 전산 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주목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실무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2020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대학이 정규교육과정의 전공과목 외 취업 경쟁력 제고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청년 취업난 해소 및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안에서는 학생들이 해당된 과정을 수료한 후, ▲관련 업계 필수 취득 자격증 ▲수료생에 대한 향후 계획, 전망 등을 심사하여 부산 시에 걸맞은 미래 인재 학생을 취업에 즉각 연결할 수 있도록 심사한

다. 훈련 참가자는 참여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1년 이내의 미취업자에 한해 대학 자체에서 선정한다. 대학 학과별 취업 지원 추진 상세 과정으로는 부산시 수행 대학 선정 및 점검 후, 대학에서는 비용 청구와 실적 보고를 통해 대학(학과) 훈련생들에게 훈련비를 지급한다. 각 훈련생들은 해당 대학 훈련 참가, 취업 결과를 제공한다.

우리 대학 호텔경영학 전공에서는 세계 연쇄점 호텔들이 지칭하는 호텔 전산 제도에 맞춰 가상으로 호텔 전산 제도를 재구축했다. (메인 PMS로 지정하는 가상 호텔 전산 제도를 구축) 이는 약 200실 규모의 가상 호텔 전산 제도를 구축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지난 3년간 진행했던 선택 대학 조성 사업을 통해 전공교육과정 개편에 적극적인 힘을 부여했다.

그 후 우리 대학에서는 지난 3년간 진행했던 선택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을 통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며 전공교육과정 개편에 힘썼다.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선택 대학에서는 세계적 호텔 정보 실무 과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 과정을 등록한 2021년 졸업 대상 학생들은



▶세계적 호텔 정보 실무 과정 강의

OPERA 운영 체계를 학습하고, 취업 후 실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 능력과 관련 기술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9월 3일 이후 학기 중 비교과 과정 16시간을 활용하여 기업 현장실습, 사업 특강, 취업 선배 조언 등 실용성 높은 교육을 진행한다. 모든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호텔업계와 공동명의로 OPERA 교육과정 수료증도 발급된다. 더 나아가 부산 지역 내 호텔경영학 전공 학생들의 전산 제도 교육을 위한 전공 및 비교과 운영 과정을 구축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서 PMS-OPERA 관련 민간자격증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학과별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우리 대학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산에 위치한 세계 연쇄점 호텔들도 교육과정 및 방법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교육 방향과 교육과정의 관리 등에 대한 애정없는 격려와 조언을 보냈다. 힐튼호텔부산의 인사·교육 총괄 팀장은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많이 위축되고, 관광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교육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내

다봤으며, 실제 교육과정에서 호텔 건축이나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연이어 이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홍중화 관광학부 장도 "관련 가족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과정이 진행됨에 감사하며, 최근 코로나19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 및 방역 관리, 학생들의 개인적 노력을 비롯하여 인터넷 집합 교육 방식의 교육을 도입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산업 요구의 반영에 대한 계속적 노력을 기반으로, 세계적 연쇄 호텔들이 전문화된 역량을 겸비한 인력이 현장으로 완전하게 이어지기까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호텔 경영 실무 교육과 현장실습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세계적 호텔 업계 관광산업이 제고된다.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실력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낼 것을 기대한다.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 학과별 Q&A 인터뷰

세상, 그 중심의 소프트웨어학과

질문.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 트랙에 소속되어 있는 19학번 2학년 강정 무입니다.

질문.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답변. 지학년 때에는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학년이 진행될수록 자료구조나 소프트웨어 설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심화된 전공 위주의 수업을 받습니다.

자격증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서 계획 수립,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국가공인 시험입니다.

정보처리기사는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에는 필기와 실기가 있으며, 시험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내용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졸업 후 목표로 두고 있는 직업군이 있으신가요?

답변. 저희 소프트웨어 트랙의 지향점은 컴퓨터공학과와 차이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자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다른 학과이고 목표 지향점이 다른 학과입니다. 소프트웨어 트랙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하며 학문으로 배우는 깊이가 깊은 편입니다. 컴퓨터공학은 컴퓨터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배우는 학문입니다.

질문. 학과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답변. 소프트웨어 트랙에서 특별한 점은 컴퓨터공학과와 차이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자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다른 학과이고 목표 지향점이 다른 학과입니다. 소프트웨어 트랙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하며 학문으로 배우는 깊이가 깊은 편입니다. 컴퓨터공학은 컴퓨터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배우는 학문입니다.

질문. 교과 과정 중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나요?

답변. 1학년 1학기 때 했던 소프트웨어 입문이라는 과목이 제일 기억에 납니다. 소프트웨어 입문에서는 입문자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크래치를 배웁니다. 이 수업에서는 제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오기 전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꼈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다르게 블록을 끌어당겨 탐을 쌓는 것처럼 코딩을 하는 스크래치를 사용해 보며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접하게 되어 매우 이해하기 쉬웠던 것이 기억에 제일 남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 이 학과를 다니면서 간단하게 각오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 목표를 이뤄 우리 대학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사람 중 한 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변.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처음 들어오면 컴퓨터의 역사부터 제작 과정이나 컴퓨터 언어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배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점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재밌고 자신이 직접 제작을 하는 기회도 생각합니다.

이유진 수습기자

디자인 전공 장기용(2011년 졸업) 동문, 핀란드 대학 진학

다양한 해외 교육 경험 후 국외 대학 진학



▶디자인학 전공 IS 루트 장기용 졸업 동문

디자인학전공 IS루트 장기용 학생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9월 학기부터 2년 동안 핀란드 알토 대학교 서비스 디자인 전공에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게 됐다. 우리 대학의 많은 국제 교육을 경험했던 그는 졸업 후 1년 3개월간 서비스 디자인 전문 업체에서 실무를 경험한 뒤 서비스 디자인 발전의 유럽에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을 결정했다.

알토 대학교는 핀란드 정부 주도하에 다학제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대학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헬싱키 공과대, 경영대, 디자인대학을 합병하여 2010년에 설립된 대학교다. 디자인대학의 경우 1871년 설립되어 약 150년 전통을 자랑하고 미술 & 디자인 부문 세계 7위대 세계 혁신대학 3위로 선정된 대학교이다.

이에 장기용 졸업 동문은 "서비스 디자인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어, 현지 2년간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공부하고 시도해보려 합니다. 졸업 후에는 해외 연구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정보 통신망 기업, 상담 기업, 정부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도전하고 경험해보고 싶습니다."라며 세계적인 인재가 되겠다는 그의 포부를 밝혔다.

이를 사례로 우리 대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해외 교육을 소개한다. 우리 대학 해외 취업 지원 종류로는 ▲아시아 탐방 프로그램 DAIP(Dongseo Asia Initiatives Program) ▲동서아너소사이터 ▲미·중·일 SAP(Study Abroad Program) ▲현장 국제기술봉사단 ▲아시아 여름 연구 교육(Asia Summer Program) ▲동서 영 어 교육 ▲영어로 강의하는 교양 강좌 ▲디딤돌 해외취업지원 교육 ▲해외 교환학생이 있다.

첫째로 아시아 탐방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2주간 인솔교수의 지도하에 아시아 국가(지역)를 탐방하며 수업을 듣고 연구 교육을 수행한다. 30시간의 국내 및 해외 현지 수업을 통해 함께 계획 학기 교양 학점(2학점)을 인정한다.

둘째, 동서아너소사이터는 해외 취업을 돕는 교육으로, 세계적 역량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학년부부터 4학년까지 특별 교육을 통해 전공지식은 물론 국제적 소양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한다.

셋째, 최고로 학점을 인정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인 SAP는 유학이나 해외 연수의 꿈이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다.



▶SAP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대학 학생들

특히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소재한 해외 대학 및 자매 대학에서 외국어는 물론 현지 문화 체험과 전공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적 학습 교육이다.

넷째, 현장 국제기술봉사단은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을 위한 기회뿐만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지원이 된다. 매년 여름방학 동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서 봉사를 통해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다.

다섯째, ASP는 SAP와는 다르게 여름방학 동안 아시아 각국의 자매 대학 학생들과 함께 모여 아시아의 문화와 교육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섯째, 학교 자체에서 지원하는 동서 영 어 교육은 매년 신입생들만을 대상으로 우수한 학생 50명 내외를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전 과정을 100% 영어로 진행한다. 이는 1년간 주 16시간(한 학기 10학점)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통해 해외 명문 대학의 영어 교육을 이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참가 학생들은 아울러 동시에 전공수업도 진행한다.

일곱째, 해외 연수 교육 말고도 영어로 강의하는 교양 강좌가 있다. 이는 신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까지도 영어로 수업하는 교육이다. 영어로 강의하는 교양 강좌는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30개 과목을 영어전용 수업으로 진행한다. 또한 다양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체득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며, 해외를 가지 않고도 세계적 마음가짐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다.

여덟째, 디딤돌 해외취업지원 교육은 해외 연수를 하여 교육을 받는 것으로, SAP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둔다. 해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 후 미국, 일본, 베트남 등 현지 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4학년 2 학기에 파견되는 학생들은 15학점까지 해외 기업 학점도 취득한다.

마지막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채 교육을 받는 교환학생은 대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대학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다. 이는 일정 기간 해외 자매 대학에서 공부하며 정규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다. 학점은 한 학기 또는 1년의 파견 기간 동안 이수 학점(학기당 최대 18학점)으로 인정한다.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WISET 사업단 안 '이공계 진로 교육' 가동



▶우리 대학의 모습

우리 대학이 WISET 사업단에 선정되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한다. WISET 사업단 안에 선정된 우리 대학은 교육의 우수성과 적절성 그리고 사회적 봉사와 교육이 적절하게 이었다. 잇따라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공계 교육에 대한 전국 단위 우수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다.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WISET 사업단의 프로그램 추진 과정으로는 먼저 WISET 사업단 진로교육 과정들을 전국 단위 중고교 교사 및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이는 2023년 7월까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중고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진로와 전공에 대해 전문적인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수혜의 기회를 증대할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 종류에는 3D 메이커 공학, 로봇-드론 공학, 음향 공학, 화장품 신소재공학 등의 창의공학 체험과 찾아가는 이공계 진로설계 특강이 있다. 또한 여성 기 기술, 청소년 에니메이션 체험, 샵롱 드 아랑거리다. 이는 일정 기간 해외 자매 대학에서 공부하며 정규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다. 학점은 한 학기 또는 1년의 파견 기간 동안 이수 학점(학기당 최대 18학점)으로 인정한다.

WISET 사업단은 특히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공

간으로, 산업 4.0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단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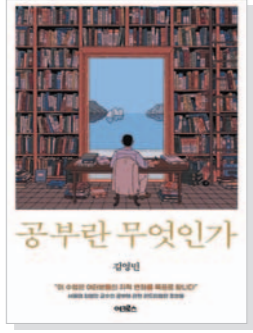
추진 전략으로는 첫째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차세대 혁신 여성인재 양성'이다. 참여자들에게는 여성의 미래 수요를 분석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여성과학기술인 평생 교육 체계를 마련하면서 여성의 경력 성장 및 전환을 제고한다. 두 번째로는 '노사 존중 공감경영 및 윤리와 책임 경영 실현'이다. 노사협력을 통한 일, 가정 양립 기관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면서 윤리 인권 경영 체계 강화와 투명성을 제고한다. 교육 과정으로는 안전 환경 및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구축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 분야 문화 혁신 및 가치창출을 위한 길 구축'이다. 참여자들에게는 국제 교류 및 협력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 정책, 제도, 통계에 관련해 여성과학기술인 성공 사례를 발굴하며 진행한다.

자료출처 :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책 속의 풍경 -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를 위한 올바른 자세



• 책 제목 : 공부란 무엇인가
• 책 저자 : 김영민
• 출판사 : 에크로스

2018년 추석, 다음과 같은 제목의 시평 하나가 한 신문사에 게시됐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의 다른 시평들 제목과 달리 미묘하게 고개를 기울여지게 되는 이 시평은 인터넷을 한동안 떠돌아다니며 만들어졌다. 추석과 같은 연휴에 얽매는 친척들의 악의 없는 악의적인 말에 맞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작가는 이같이 표현하고 있다. "본질을 물려라."라고. 어느 누가 취직은 언제 하는지는 친척의 질문에 "취직은 무엇인가."하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뇌 속에 고착되어 있던 개념을 부셨던 추석 시평의 주인공, 김영민 작가는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학생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것을 관한 책을 출간했다. <공부란 무엇인가>는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고도 현생애 만족하지 못한 채 험난한 공부의 길을 선택한 대학생들에게 "대학생이란 무엇인가."하고 되새기게 하는 물음표를 던져주는 책이다. 그렇다 하여서 정말로

책의 제목과 같이 공부의 본질을 말하는 심오한 내용이나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 <공부란 무엇인가>는 진정한 공부를 위해서 갖춰야 할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도입부에서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 공부에 열정을 쏟아붓는 청년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제대로 된 공부보다는 말초적인 욕망과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부에 몰두한다고 비판한다.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공부를 위하여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책이 <공부란 무엇인가>이다.

목차는 크게 다섯 가지다. 지적인 성숙함을 갖추기 위한 언어적 교양을 높이는 방법.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이를 뒷받침해 줄 체력의 강조. 진정한 공부를 위해서는 암기식의 구구절절한 방법이 아닌 진정으로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글쓰기의 자세.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의성과 사고의 확장을 다루기. 마지막은 작가의 예전 인터뷰를 끌어들여 책을 마무리를 짓는다. 제목이 책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부제를 짓게 된다면 '지적인 사람이란 무엇인가.' 정도가 어울릴 것 같다.

책은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 글의 목차가 서술되고 있다. '공부는 하고 싶는데, 글도 잘 쓰고 싶고, 말도 잘하고 싶어요.' 이 같은 희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작가는 어릴 적부터 학문을 배우고 즐겨 하던 사람이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헌책방에 들러 책을 보던 사람과, 학문보다는 게임에 빠져 살았던 필자는 다르기에 완전한 공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르기에 작가가 살아왔던 길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책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책을 읽기 부담스럽다면, 작가의 시평을 읽어보기를 권장하고 있다. 특유의 익살 넘치는 문체로 글 속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앞서 언급하였던 '추석이란 무엇인가.' 시평과 같이 작가는 풍자적으로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작가 스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료하게, 그렇지만 주제를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민 작가의 글에는 그가 직접 과거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쉽게 풀릴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농담으로 소화하는 능력까지 보여주니 깔끔하면서 재치가 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공부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는 역사에 얽힌 이례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어지럽혀지는 바람에 제 몸 챙기다 공부하러 모두 각자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약이 가득한 아슬아슬한 시간이지만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속상하다고 할 때가 아니다. 속상함을 우물 정자에 달아 인터넷에 널리 공유하는 것이 아닌 남 몰래 해오지 못했던 학문적 실적을 실행할 때가 왔다. 맺는말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지만, 공부를 안 해서 제대로 못 쉬는 후에 개인과 기업의 결정에 따라 근무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보통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 겪는 기간이지만 이 영화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한여울 기자
hanyewon0329@gmail.com

이달의 영화 - 인턴



• 영화 제목 : 인턴 (The Intern)
• 감독 : 낸시 마이어스

"인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단 어일 것이다. 인턴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나 기관 따위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 전에 앞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나 사람을 뜻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회사에 정직적인 인원이 되기 위해 회사의 취지나 지향하는 인제상에 알맞은지 확인하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자신이 일할 만한 곳인지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 기간이다. 이 기간을 거친 후에 개인과 기업의 결정에 따라 근무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보통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 겪는 기간이지만 이 영화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영화 인턴은 70세인 '벤(로버트 드 니로)'이 한 의류회사에 인턴을 지원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벤은 아홉 정해된 시간에 일어나며 항상 공원에서 야외 체조 수업을 듣는다. 아내가 죽은 지 3년이 되었으며 은퇴를 한 후 자신이 쌓은 비영리 적금으로 전 세계를 누빈다. 그러나 집에 올 때의 공허함을 지울 수

또 다른 출발

없이 하며 몸을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에 우연히 보게 된 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된다. 벤이 지원한 의류회사는 열정적인 30세 '줄스(앤 해서웨이)'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곳이다. 줄스는 회사 직원 하나하나를 관리하며 공장에 직접 방문해 받는 고객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상자 포장까지 하나하나 신경 쓸 정도로 회사에 애정이 많은 여성이다. 회사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만큼 바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많은 직원들과 회사를 경영하기에는 어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새로운 경영지원자를 세우자는 말들과 갖은 탄압을 맞으며 가정에도 소홀해지며 힘듦을 겪는다. 그러던 와중 '시니어 인턴'이라는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턴을 뽑는 정책을 시행한다. 벤 외에도 많은 인턴들이 합격하게 되고 그중 벤은 해당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줄스의 개인비서를 담당하게 된다. 줄스는 이러한 벤이 불행하게 느껴지지만 벤은 자신의 노력과 경험으로 줄스를 보조해 준다.

벤은 늦게까지 남아 있는 줄스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를 줄스가 발견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사실 줄스가 운영하는 의류회사의 건물은 옛날 벤이 일하던 전화번호부 건물이었으며 바닥의 단차나 남아있는 흔적들이 자신이 회사를 다닐 때 생긴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줄스는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벤은 줄스를 존경하며 줄스의 가정도 신경 써주며 줄스는 이러한 벤에게 기대고 점 차 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줄스가 벤을 불려오던 당시 부하직원에게 벤을 다른 부서로 보내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벤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된다. 그러나 줄스는 자신이 생

각보다 많이 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벤에게 달려가 사과를 하고 자신의 부서로 옮기게 된다. 벤은 줄스의 딸 '페이지'와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갔다가 집에 오던 중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벤은 줄스를 생각하여 말하기를 망설여 하지만 사실 줄스는 알고 있었다. 딸을 위해 숨기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벤과 함께 한 출장 중 벤에게 털어놓게 된다. 벤은 줄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공감해 주고 줄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진실되게 마음을 담아 해준다. 줄스는 자신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이끌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자신이 홀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벤과 함께 공원에서 체조를 즐기며 영화는 끝이 난다.

인턴이라는 것이 다만 사회 초년생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영화이다. 벤은 7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으로 인턴에 지원했다. 그러나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해 하며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은 우리러려야 할 부분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서 나 혼자 이 모든 것에 적응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꺾어보면 별거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겪고 난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벤처럼 자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구나 우왕좌왕하며 여기가 자신의 자리가 맞는지 고민을 하다 자신감을 되찾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줄스의 모습 모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유진 수습기자

‘코로나 우울’ 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



▶반려식물

▷사진출처 - 부산일보 공식 페이스북



▶문화체육관광부의 집콕운동 권장 포스터

▷사진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은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휩싸였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코로나 블루'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우울'을 선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는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 제약 장기화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과격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등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코로나 우울은 가중화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정신의료기관이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우울감,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전파뿐 아니라 코로나 증상, 치료 과정, 검체 채취 장소 등을 묻는 상담 전화 건수도 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 우울은 그 정도를 넘어 분노로 변해 화병 증세를 보이는 이들도 탄생했다. '코로나 레드'나 '코로나 앵그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병균 소독뿐 아니라

심리적 방어의 절실함이 드러난다. 특히 코로나 우울 증상은 청년층, 특히 2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 활동성이 많은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제약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감과 일지러 감소에 따른 취업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채용 계획과 더불어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어학 시험들도 함께 이뤄져 강제로 긴 공백이 만들어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우울함을 증가시키고 있다.

■ 코로나 우울 증상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코로나 우울 증상은 대표적인 우울 증 증상을 떠올리면 알 수 있듯이 ▲기분 답답함 ▲불안감과 공허함 ▲소화불량 ▲불면증과 수면 부족 ▲무기력 ▲두근거림 ▲감정 기복 ▲두통과 어지러움 ▲이명 ▲식욕부진 등 다양한 증상으로 찾아온다.

■ 코로나 우울 예방

의료계에서는 코로나 우울을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시간 등 일상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손 씻기나 코와 입에 손대지 않기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매일 같이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신문, 방송 보도의 1면을 장식하는 가운데,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는 가짜뉴스에도 주의해야 한다.

■ 코로나 우울 극복 방법

20대들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집에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들으며 심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있다. 그 외에도 ▲진구, 지인들과 전화, 문자, 가상현실 상 비대면 교류하기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하기 ▲동네 준비생들의 우울함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중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가벼운 산책 등 신체 활동을 꼽았다. 한적한 야외에서 마르코를 쓰고 하는 가벼운 활동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약탈, 항우울제 약물만큼이나 효과가 있다. 간단히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것으로도 면역력 증진과 기분전환에 도움이 된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면 뇌신경 세포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산되는데 이는 친환경 항우울제로, 즐거운 감정을 만드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생성한다.

■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

코로나 우울 극복에 도움이 되는 취미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활동은 반려식물 키우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로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소위 '집콕'하는 이들에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취미 중의 하나로 식물 키우기가 작은 텃밭 만들기는 간단히 시행 가능하다. 최근에는 줄어드는 외부 활동으로 집 안에서 자연의 생기를 들여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플랜테리어(plant+interior)가 부상하고 있다. 집안 곳곳에 화분을 두고 꾸꾸러 베란다, 옥상, 마당 등 자투리 공간을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식물은 관리 방식과 종류가 다양해 각각 취향과 생활습관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더욱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집안장벽이 낮은 것도 장점이다.

집안 운동(홈트레이닝)도 급부상하는 취미 활동이다. 헬스장이 문을 닫아 운동을 못해 답답한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활동일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 특화된 집안 운동 도움(서비스)'가 개발되어 인공지능 도우미가 운동의 정확도를 파악하며 동작 피드백을 시행해 주는 응용 도우미(앱)도 탄생했다. 집안 운동의 장점은 특별한 운동기구 없더라도 간단히 따라 할 수 있으며 운동을 통해서 생활 건강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넷플릭스나 왓츠 플레이 시청이나, 오락,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의 취미 활동을 통해 '집콕' 생활을 견뎌내는 것을 권장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코로나블루 뉴시스 언론, 싱글리스트 김태형 기자 hyangsun3311@gmail.com

축제·공연 소식

부산 국제광고제

- 기간 : ~2020. 10. 24. (토)
- 장소 : 벡스코 컨벤션홀, 해운대 일일
- 주최 : (사)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부산 국제 영화제

- 기간 : ~2020. 10. 30. (금)
- 장소 : 부산광역시 영화의 전당
- 주최 : (사)부산국제영화제

진주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2020

- 기간 : ~2020. 10. 31. (토)
- 장소 : 진주성 축석루 및 야외공연장
- 주최 : 경남 진주시

창원 조각 비엔날레 2020

- 기간 : ~2020. 11. 01. (일)
- 장소 : 성산아트홀, 용지공원
- 주최 : 창원시

부산불꽃축제

- 기간 : 2020. 11. 7. (토)
- 장소 : 광안리 해수욕장 일일
- 주최 : 부산광역시

거제시 꽃축제 2020

- 기간 : ~2020. 11. 8. (일)
- 장소 : 거제시 농업개발원
- 주최 : 거제시

부산 국제매직페스티벌

- 기간 : ~2020. 11. 29. (일)
- 장소 : 영화의 전당, 해운대 구남로 및 이벤트 광장 일대
- 주최 : 부산 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조선 최고의 왕, 세종의 독서법



▶세종대왕 어진 >사진 출처-KBS 뉴스



▶세종대왕의 독서 사진 >사진 출처-다음 블로그 경덕제

독서는 인쇄 기술, 종이 제조 기술이 없던 시기에도 해운 행이었다. 독서는 인간다운 행위이며 인간만이 가능한 행위이다. 예로부터 독서는 높은 계급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고 글을 읽을 수 있음은 그들의 특권이고 권력의 시발점이다. 디지털 기기가 넘쳐나는 현대에도 독서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 하나이다.

독서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독서를 하느냐이다. 누군가는 "바로 첫 장부터 읽을 필요는 없다. 목차를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읽

을지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읽으라, 아니면 매일 책을 가지고 다니며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면 된다."라고 말한다. 세간에 떠도는 독서법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독서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어떻게 읽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잘 읽어지는 대로 읽으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지식은 다다익선이라고 독서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독서는 사고력을 길러준다. 논술과 논리에 대한 사고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독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독왕, 세종대왕을 들 수 있다.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의 독서 일화와, 그의 독서법을 함께 소개해 보고자 한다.

세종대왕의 독서 일화

세종대왕은 책을 좋아하고 신하들과 역사와 경전에 대해 거침없이 대화하기를 즐겼던 사람이다. 책을 읽는 습관이 뛰어난 왕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의 다독 일화를 알 수 있다. 세종은 즉위하기 전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태종은 그런 세종을 보며 병이 날까봐 환관을 불러 책을 모두 압수하게 했

다. 그런데 세종은 병중 뒤에 숨겨진 구조수간(송나라 무인 구양수와 소식을 주고받은 편지글을 모은 서간집)를 발견했다. 세종은 이를 반복해서 읽어 1100여 번을 읽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즉위한 이후, 식사를 할 때도 언제나 책을 보고, 업무를 끝낸 뒤에도 침소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눈병이 도져 결국 결막을 해치게 되었다는 이야기 등 소위 '책벌레' 세종에 대한 일화는 무수히 많다.

세종대왕의 독서법 '백독백습'

세종대왕의 독서법은 백독백습이다. 우리 말로 풀이해 보면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것이다. 한 권의 책을 백 번 이상 읽고 쓰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이라는 구절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책을 백 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중국의 사서인 <삼국지>의 서에 실린 동유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세종은 책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안 읽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책을 꼭 100번 읽고 100번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할 때까지 계속 읽는 것이다. 한 권을 보더라도 그 한 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한다면, 의미 없이 여러 권을 읽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정해진 독서법이 없는 것처럼.

물론 100번 보고 100번 적는다고 문장을 통달하지 못한다. 배경지식, 외부 자료가 필요하다. 책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다면 책의 참고문헌을 찾아 읽어보거나 영상 자료를 찾아보자.

세종대왕의 독서 제도 '사가독서'

세종대왕은 독서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다. 특히 '사가독서(賜暇讀書)'라는 일종의 독서 휴가 제도를 만들어 독서를 위해 따로 시간을 제공할 정도로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현전에 소속된 재능 있는 신하들이 낮에는 조정 업무에 쫓기고, 밤에는 숙직 때문에 학문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일정 기간 휴가를 주어 독서에 몰두하게 한 것이 '사가독서'이다. 처음에는 각자 자기의 집에서 독서하게 하였으나, 방문객들로 인하여 방해받자, 나중에는 아예 조용한 산속으로 거처를 옮기어 독서하게 했다.

사가독서의 세부 규칙을 살펴보면 나라에서 월급을 주며 짧은 관원들을 놓게 하는 휴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가독서에 뽑힌 관원들은 자신이 읽은 책의 권수를 매 계절 첫 달에 적어서 제출하고, 매달 세 차례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사가 독서를 끝마칠 때는 결과물인 월과(月課) 매달 정해놓은 시험을 제출해야 했다. 과제물에는 성적이 매겨졌고 완성도에 따라 시상도 주어졌다. 이러한 사가독서 제도는 오늘날 대학교 수나 연구원에게 주어지는 '연구년제'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대왕의 독서 활용법 '경연'

세종대왕은 책을 읽고 신하들과 경연을

가졌다. 임금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문이나 기술을 강론하는 지금의 독서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경연은 신하가 군왕을 교육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려 시대부터 존재한 것이었고, 신하 중에서 학문이 출중한 자가 경연관에 임명되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왕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세종은 경연시간에 함께 공부할 책을 정해서 읽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으로 응용했다.

세종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세종은 배움에 의지 않고 신하들과 책에 있는 내용을 토론하고 또 이를 확장시켜 정제를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용했다.

세종은 '대왕'이라는 칭호에 맞게 조선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는다. 실제로 세종이 통치하던 시기는 풍요롭고 높은 업적으로 유명하다. 여러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은 스스로 책을 갈망해, 자신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독서에 전념하라는 말을 내릴 정도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종대왕의 독서법과 독서에 대한 애정을 받아, 어떤 독서법을 이용하든 독서를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권한다.

자료출처 : 오마이뉴스 - 세종대왕은 어떻게 책을 읽었을까
네이버 블로그 - 안계환문명연구소 도서 <독서법> 김정신 저자

김태향 기자
hyangsun3311@gmail.com
정동은 수습기자

총학생회,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여러 활동을 추진하며 밝고 활기찬 교정을 만들어가는 학우들의 대표



▶총학생회 학생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코로나19)이 지속이 되면서 우리 대학 운영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이에 총학생회 측에서는 지속해서 바뀌는 변동 상황을 꾸준히 알리며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극복에도 동참하며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들과 회견을 했다.

질문. 총학생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주로 어떤 안건을 받고 논의가 진행되나요?

답변. 우선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여러 안건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안건을 받기 위해 총대의원회, 총 동아리연합회, 학부 대표들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교의 여러 안건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보통 2주에 1회, 많게는 1주 1회를 진행했으나 이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실내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게 제한이 있어 중앙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지난 학기에는 약 3회의 중앙운영위원회를 진행했고 주된 안건 내용은 2학기 등록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

다. **질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 동아리연합회, 중앙집행부 국장이 모여 학교 내의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최고 운영 기구입니다. 안건으로는 학생 복지, 교육, 장학, 행사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래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을 진행합니다. 현재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하여 실내에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비상시에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학생들이 직접 총학생회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총학생회는 항상 딱지 보도나 공지사항에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둡니다. 물론 항상 좋은 전화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듣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학우 여러분들 또한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공지해 주셔서 감사하다, 항상 고생한다." 등 감사 인사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또한, 문의 사항이 있어 전화 주시고 감사함을 꼭 표현해



▶생필품을 나눠주는 모습

드리던 저희 역시 두 팔 걷고 더 알아봐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항상 감사하다는 표현을 비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역시 저희도 사람인자라, 칭찬을 받으면 힘든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항상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지만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가 갈 때까지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생각입니다. 쓴소리, 고운 소리 다 환영합니다.

질문. 대면 개강이 지연된 후 실질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답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많이 늦어져 학우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신 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면 개강이 점점 늦춰지다 보니 신입생들을 위하여 학교 안내자료(지도, 학교생활 등)를 걸쳐 시험 기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험 기간 행사에는 약 900명의 학우들이 참여해 주셨으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시작된 뒤 학우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많은 설렘이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2학기 때도 여건이 된다면 보다 다양한 행사 준비를 하여 학우 여러분들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서 조금이나마 교내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물자를 구비하여 매 수업 시간 30분 전 대면 강의실을 직접 방문, 방역 및 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대면 개강이 지연된 후 학사과정 이외의 노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자취생들을 대상으로 4월 경 생필품 박스를 직접 제작하여 약 100여 명의 학생에게 전달하였고, 말씀드렸던시피 이 모든 교내의 상황을 학우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딱지 보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수많은 문의를 해주신 등록금 관련 부분은 4월부터 학교와 회의를 진행하였고, 격려 장학금 지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학기 기말고사는 대면시험이라 총학생회는 작은 추억이라도 선물하기 위하여 보고 2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정(선별) 1일 등 총 3일에 걸쳐 시험 기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험 기간 행사에는 약 900명의 학우들이 참여해 주셨으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시작된 뒤 학우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많은 설렘이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2학기 때도 여건이 된다면 보다 다양한 행사 준비를 하여 학우 여러분들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서 조금이나마 교내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교내 환경 근로 어르신들에게 방

독면을 전혀 학교의 따뜻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은데요. 방독면을 드리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답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매일 학교에 오시는 교내 환경 근로 어르신들은 학생들이 오게 됐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시로 교내 환경 정리 정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방독면 5만개를 실시한 이후부터 대부분의 어르신께서 방독면 수요가 부족하여 한 개로 며칠을 쓰고 계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몇몇 근로자분들은 면 방독면을 빨아 쓰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심통하여 우리 총학생회가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노고에 도움이 되고자 방독면과 간단한 비상식량 등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질문.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필품 80상자를 전달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이를 모두 배웠을 당시 소감은 어떠셨나요?

답변. 처음에는 사실 걱정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고 이렇게 직접 맞닿아서 진행하는 행사는 우리 동서대학교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배달하러 갔을 당시 유학생 분들이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놀라웠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눈치가 보여 결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이나 다른 물품들이 부족하여 걱정하고 있던 참나 학생회 분들에게 직접 생필품을 전달받아 정말 기뻐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해줬던 부분은 4월부터 학교와 회의를 진행하였고, 격려 장학금 지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학기 기말고사는 대면시험이라 총학생회는 작은 추억이라도 선물하기 위하여 보고 2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정(선별) 1일 등 총 3일에 걸쳐 시험 기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험 기간 행사에는 약 900명의 학우들이 참여해 주셨으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시작된 뒤 학우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많은 설렘이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2학기 때도 여건이 된다면 보다 다양한 행사 준비를 하여 학우 여러분들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서 조금이나마 교내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원치 않은 많은 변수로, 많은 일을 부딪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 어떤 힘든 점이 있었나요?

답변. 이 시기에 할질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부담감은 당연히 우리 총학생회가 짊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힘든 점이 있었다면 학생들을 만나보지 못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희 대한 총학생회는 밝고 활기찬 교정을 만들어 학우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

태로 인하여 교정의 벚꽃들은 주인을 잃었고 시골벽적하던 학교는 방학보다 더 조용한 학기가 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총학생회는 이러한 때일수록 학우 여러분과 더욱더 많이 소통하며 학우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2학기에 진행되는 일정 중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공지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이번 학기는 먼저 10월 둘째 주까지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연장될 시 1주일 전에 반드시 공지사항 내려가 모든 학우 여러분들은 정보 통신망(E-CLASS)을 통해 수업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학교 방문이 어렵지만 곧 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대면 수업을 우선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총학생회와 학교는 학우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공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의가 들어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정보 통신망(E-CLASS)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10월 활동 관련 세부 사항과 2학기에 진행되는 전반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월에 가장 큰 활동은 19일(목) 4일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고 그 이후 10월 26일(목)에는 전산망 운동경기 대회가 진행 예정 중입니다. 중간고사 기간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과 발열 체크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원래 예정이던 체육대회와 축제가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11월 선거와 12월에 있을 시험이 올해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1월에 있을 선거와 추가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중앙운영 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또한 사이사이 작은 행사를 열어 최대한 학우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조은빛 기자
dmsalc111@gmail.com
최은석 수습기자



조금은 특별한 한 해

김희정 (글로벌경영·2)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 누구나 지난해 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듯, 나 또한 2020년을 맞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작년에 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짜며 2학년이 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2020년 시작과 함께 또 다른 변수가 닥쳐왔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나뿐만이 아닌 전 세계 모두가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한 채 멈춰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봄이 시작되는 3월과 함께 개강을 맞이하며 학교에 가는 것이 나에게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은 사람과의 접촉을 피도록 피해야 하며 기급적 외출을 자제 해야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대응하여 학교에서도 대규모 모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직접 얼굴을 보며 수업을 하는 대면 수업 대신에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게 되었다. 작년 이맘때에는 수업을 듣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이곳저곳 강의실을 찾으러 다녔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교에 발을 댈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 초반에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일이라,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며 문제점을 해결해나갔다. 개강을 하고 곧 잠잠해질거라 예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들 2주씩 대면 수업을 연기하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코로나로 인해 중간고사까지 온라인으로 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

하게 되었다. 대규모 모임을 피하기 위해 결국,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주의 강의를 끝날 때마다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새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다.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치게 되었는데 대면으로 치는 만큼 세심하게 방역이 진행되고 학교 건물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발열 검사를 확인한 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한 학기가 코로나로 인해 허무하다시피 끝나게 되었다.

평소처럼 밖에 나가 돌아다니거나 다 같이 모여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밖에서 의식하는 것 등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일상생활들이 이제는 그리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작년 여름 방학에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추억도 쌓을 수 있었지만 올 해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또한 이번 여름 방학에는 저번 여름 방학 때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해보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나를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마저 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0년의 1학년들이 생활을 그냥 흘러 보내고 싶어 아쉬움이 클 것 같다.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첫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떻게 하고 갈까' 하는 설렘을 접고 본격적인 학교생활을 시작도 못한 채 허무하게 반 학기가 지나가버린 것이다.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고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해보며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것처럼 학교에 대한 로망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을 못하게 되니 상심이 클 것 같다. 내가 입학하고 1학년 3월에 노렸던, 낯설지만 설렘 또한 존중했던 그 감정을 이 순간이 아니면 언제 즐겨 볼 수 있나 싶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미터 거리두기는 감염률을 9.8% 낮췄고, 마스크는 감염률이 14% 낮췄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마스크 걸면 면지는 행위는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율바르지 못한 마스크 착용법이라고 한다.

마스크가 의무화가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우습기만 하지만 답답하더라도 작은 수칙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 같이 이전의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집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힘들고 지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뉴스에 나오는 모임, 여행, 집회, 예배 등 정부에서 자제하라는 권고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동요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노력한다면 2학기에 대면 수업을 하며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나 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없는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죽비소리

대학 생활의 꽃 - 교내 행사

조수빈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트랙·2)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교내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학교를 지원할 때 교내 활동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을 듣고 지망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입학하고 난 후 '전공에만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연구실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자 했는데, 특히 국제 교류센터에서 개최하는 활동들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국제 교류센터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활동은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고, 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생들은 신입생이라는 제약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인제 진행될지 모르는 프로그램에 지원할 준비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했던 것은 학교 홈페이지의 모집사항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들어가 확인하고 시험을 칠 때마다 매번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CBT 점수를 높이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참여했던 활동의 수는 많지 않지만, 참여했던 활동 중 특히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ASP(Asia Summer Program)이다. ASP는 여름방학 동안 아시아 각국의 자매대학 학생들과 함께 모여 아시아의 문화와 교육을 체험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국제 교류 활동이다. 신입생 입에도 할 수 있었던 활동 중 하나인데 CBT 점수가 낮아 지원하는 것은 포기

한 상태에서 참여할 운명이라는 뜻이 정말 기적적으로 일정 자격을 달성할 수 있었기에 기억에 더 남기도 한다. 게다가 ASP를 가서 많은 선배와 동급생, 외국인들을 만났고, 참여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음에 그때의 기억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을 정도로 너무나 재밌고 알차게 보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연구실 활동으로 공모전, 창업캠프 및 기업탐방 등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초반에는 대부분 창업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혼자서라면 시도해보지 않을 것 같은 창업 공모전이나 캠프는 연구실 활동으로 몇 번 나가다 보니 익숙해지고,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커톤'에서는 자료조사 맡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자니 전공을 더 열심히 배워 뛰어겠다는 동기를 얻을 수 있었다.

전공과 관련된 공모전이 아닌 교내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친구들이 무엇이 참여하는지 물어보고 힘을 줄 수 없다고 많이들 묻는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좋다.

내가 2학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2020년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한다면 친구의 소식이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갖가지 활동에 참여했던 1년을 토대로 학교에 대한 유익한 정보 및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빨리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라는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고,

대부분 활동 및 행사들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무산되어 내 계획은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이 외에도 재학생들에게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낸 결실이 대부분 무산이 되고 (SAP, 교환학생 등) 자신의 인생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행사들도 취소가 되어 많이 괴로웠을 것이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신입생이던 20학번들은 대학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로의 안면을 트는 개강 총회, 대학에서 빠질 수 없는 과 친목 도모 모임, 동아리 등의 행사들이 취소되고 신입생들만의 분위기를 느껴보지도 못한 채 이미 반년이 지나갔다. 코로나19는 2020년이라는 한 해를 단정해버린 것이다.

2020년 1학기 수업을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비대면으로 돌리는 바람에 학생인 우리도, 교수님도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힘든 한 학기를 보냈어야 했다. 이번 1학기 같은 생활은 대학생활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타지역에서 많이 있는 만큼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대학 특유의 분위기를 다시금 느끼고 싶어 다음학기에서는 조심스럽게 비대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있다. 대학교에 와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겪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것을 어떻게 대학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 백신까지 오는 오래 걸리겠지만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치료제라도 빨리 개발되어 대학 특유의 분위기를 다시금 느끼고 싶다.

이달의 명언

우리말을 두고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건 영무새가 사슴 흉내를 내려고 사슴 말을 하는 것과 같다. -김말중

언어록 읽으면 민족의 바탕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영원히 독립을 이룩 수 없다. -추시경

네 컷 만화

한 글



새로운 4컷 만화와 만평을 그리게 된 디지털 콘텐츠 학부 3D 애니메이션 트랙 정희진입니다. 4컷 만화는 우리 학교 학생인 디지털 콘텐츠 학부 진희, 김호화과 허서진(머리), 김창행정학과 지은이(짱)는 펴의 학교생활을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사 설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지정됨과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단어 하나는 큰 파장을 불렀다. 뜬금없이 등장한 '사할'과 '나홀'에 대한 논란 여부 때문이었다. 광복절 대체 휴일로 15~17일간 총 3일, 즉 '사할'의 기간이 지정되었다고 기자들은 글을 작성하였고, 일부 누리꾼들은 사할을 4일이라 착각한 나머지 이를 비난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사할'은 3일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이다. 누리꾼들이 말한 4일은 '나홀'로 보아야 올바르다.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어쩌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수식어처럼 붙어 다니는 국민 전체 문맹률이 0%가 가까운 나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 문맹률'은 어떻게? 경제개발 기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문서 독해 능력은 가입국 꼴찌인 국으로 드러났다. 국민 대부분이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수학 같 할기 식의 독해 능력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앞서 말했던 '사할'

이라는 단어 자체는 읽을 수 있지만 이게 3일을 뜻하는지 4일을 뜻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이따금 긴 글 밑에 무수한 공감과 함께 이러한 댓글이 달리고는 한다. '나만 이해 못 했나?' 단순히 긴 글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짧은 문장에 대한 문해력까지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 다. 간단한 약관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고 그대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고개장구로 전화를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많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경제개발 기구 자료에 따르면 대학 진학률은 세계 1위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를 진학하는 이들은 10명 중 7명꼴이다. 많은 이들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문맹률이 높은 이러한 역설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논점은 우리나라 교육 문제로 옮길 수 있다. 대화를 통한 토론보다는 구구절절한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렇

읽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실질 문맹'

다만 '실질 문맹률'이 가장 낮은 북유럽의 교육방식은 어떠한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핀란드의 교육방식은 다음과 같다. 핀란드에선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 경쟁을 하지 않는다. 만약 학습에 부진한 학생이 있다면 별도의 수업을 마련하여 학생들 간에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무엇보다 핀란드는 독서 강국이다. 핀란드 15세 이상 독서율은 경제개발 기구에 따르면 88.4%로 1위에 우뚝 서 있다. 학교에서 교과서가 아닌 책을 사용할 만큼 책을 사랑하고 아주 긴 말한 사이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는 글을 읽는 동안 인간의 뇌 전체를 사용하게 만든다. 책을 읽고 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한 차원의 더 깊은 사고를 요구하며 삶을 되돌아보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결과적으로 핀란드 학생과 우리나라 학생의 차이점은 독서의 습관화에 있으며 이는 문해력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으로 문해력에 대한 경제개발 기

구 조사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봐야 한다 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16~65세의 문해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6~24세의 청년 문해율은 다른 나라 평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불행 중 다행인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성인의 독서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통계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독서량은 적어지며 국민 10명 중 4명이 1년 내내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은 훗날 읽기 능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과학 기술의 진보에 따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들고 있는 전자기기 또한 큰 문제점이 된다. 그나마 초등학교 시절은 얼마 안 되는 높은 독서량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 대부분은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온갖 매체를 접하면서 독서의 필요성을 잃고 있다. 한창 독서 습관을 형성해야 할 아이들이 동영상과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요약된 글을 통해 지식의 감증을 해결하니 생각을 요구하는 긴 글을 피하고 결

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 이렇다 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다. 이따금 누리꾼들을 보면 매우 간단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답답이 올라오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모든 국민의 지식 함양을 위하여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출이면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였다. 그러나 현대를 바라보면 순우리말보다는 정보 통신망을 통해 매일 새롭게 생성되는 신조어와 서양의 언어를 따라가기 바쁜 것 같다. 한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던 말인가. 인간의 자유와 자연 문화적 사상을 담은 『채근담』의 저자 홍자성은 '책을 읽고서도 성현을 보지 못하면 붓과 종이의 하인이 되는 것이다.'라 하였다. 모름지기 한문인은 '예를 따라 말하기'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글이 말하는 참된 뜻을 깨닫기 위해서 계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목회칼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김대영 목회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반향점을 돌아 2학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그라들 줄 모르는 여과성 미생물이 피우다 만 낙과처럼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앞선다. 다시 말해 여과성 미생물이 우리의 일상을 바꿀 정도로 있다. 직전 학기 거의 모든 수업이 전산 강의로 대체되었고 방목면은 필수가 되었으며 비접촉, 비대면, 사회적 거리라는 용어는 친숙하게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하루빨리 황제가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상황은 어느새 전 세계적으로 약 3,30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 (10월 초 기준)하였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는 온통 일상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결과적으로 활기는 사라지고 수동적으로 모든 것이 위축되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는 독일 철학자(칼 아스퍼스)의 말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 그런 이유로 사회 속에 있는 분노는 출구를 찾고 있다. 쟁점이 촉발되는 순간 여지없이 난도질을 당하는 형국이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국가방역에 비할 조적인 단계로 오도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교회의 예배 형식은 교계에서도 절제된 이슈와 대립 양상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대학은 올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요 13장 34절)는 표어로 힘차게 출발하였다. 신앙성경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대하는 자세요, 해결점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물론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새 계명이란 것은 이미 옛 계명을 전제한다. 옛 계명은 율법으로 구약성경의 십계명이 대표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압축되는 십계명의 특징은 ~하지 말라는 절대 금령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것들을 철저히 지켰다고 자부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근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려 차별성과 우월감, 비판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당연히 이는 정의와 불의를 조장할 뿐 시대의 대안이 되지 못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말씀하시며 이는 수동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더욱더 진취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말씀하신다.

지금쯤 어두운 여과성 미생물이 우리 영혼까지도 잠먹고 있지 않은지 살피어야 할 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을 되돌아보며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행동하는 배려가 절실하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이웃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아시면서도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헌신이 복음의 저변에 흐르고 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교리적·사변적 복음이나 아니라 언제나 실천적 복음이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다. 모조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란 황체를 만들어 여과성 미생물이 살아남는 모든 동서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 수상자 인터뷰 - 디자인학부 이지은 학생, 광고홍보학과 지은서(졸업생) 씨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은상 수상

“이거 다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 공모전 출품작



▶ 재학생 이지은 양과 졸업생 지은서 양

질문.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올 해 8월에 졸업한 광고홍보학과 지은서입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디자인 학부 2학년 이지은입니다.

질문.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답변. .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광고와 연관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크고 친근한 공모전인데요. 저 역시 동기들과 함께 매년 이를 갖고 도전했던 공모전입니다.

질문. . 저는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과 나서 마냥 쉬기보다 공모전을 나가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휴학 계획 중 하나로 세워졌었고 이 공모전에 복수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출품작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작품 명인 ‘이거 다 마시면 사귀는 거다?’는 ‘맥스웰 콜롬비아나 마스터’를 주제로 선정하여 영상 부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대용량과 익살 넘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의 명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남자가 여자에게 “이거(대용량 커피) 다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라며 애걸 합니다. 남자는 열심히 커피를 마셔보지만 낮과 밤이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마십니다. 결국 도서관이 단 맛을 시간까지 혼자 마시고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하루 종일 마실 만큼 용량이 크음을 과장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질문. 준비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답변. . 먼저 기획과 도안, 각자의 역할을 ‘적하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으로 일을 진행했던 것이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딱 이거다!’ 하는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 주제를 떠올리는 데만 며칠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답변. . 어려웠던 점은 공모전 준비를

위해 자주 만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르기도 했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연락으로만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복수로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면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할분담이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확실하게 역할을 맡게 되어 잘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질문.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은상을 수상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답변. . 솔직히 아직도 꿈같고 열떨합니다. 3년째 도전이기도 하고 워낙 저에게는 크게 느껴졌던 공모전이라 그런지 정말인 좋은 자세지만 애초부터 참가하는 데에 의의를 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명단에 올랐을 때 함께 오른 작품들이 모두 대단하고 멋져서 최종 수상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상할 것 같지 않았던 작품이 최종 수상까지 오르니 드는 생각은 광고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이 저에게 첫 공모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규모가 큰 곳에 도전해서 수상하지 못하면 괴로워 자신감만 떨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명단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본상을 수상하게 되어 실감이 나지를 않았습니까. 앞으로 도전할 공모전에도 자신감을 가지며 도전해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이외에 참가하여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던 대회가 있나요?

답변. . 먼저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입니다. 이 공모전은 매년 주제가 바뀌는 사회 공헌 공모전입니다. 저희 팀은 작년 지역대회에서 2등을 하여 전국 대회로 나갈 수 있는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전국 대회 전에 공모전 연습회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전 지역 1, 2등을 한 다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임무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총 6개월 동안 진행된 공모전이라 지칠 만도 했지만 좋은 팀원들과 함께해서 추억이 많이 쌓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공모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 대학생 광고 공모전(BAAA)에서 대학 시절 첫 상을 탔습니다. 저희 팀은 입상을 하였고 대상은 저희 과 선배들께서 수상했습니다. 문득, 나도 고학년이 되면 뭔가 저렇게 성장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벅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한 원동력이 된 계기의 공모전이었습니다.

질문. 광고홍보학과를 재학중인 신입생들에게 해주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고 3 때 저는 동서대 광고를 제외하고 전부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국어만 하고 살면 지루할 것 같아 동서대 광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광고전공에 들어오니 막상 학교에 가서는 이미 광고에 미쳐 있는 학생들과 실력이 출중한 학생들 사이에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들께서 주셨던 아낌없는 가르침과 애정 그리고 다소 변화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기, 작은 것에도 열심히 하기, 마지막으로 이른 수업은 고학년 대의 뒷받침이 되니 열심히 듣고, 광고 인사이트 찾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과제에 지쳐 학기를 지나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전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선배들이나 교수님에게 조언을 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가 살아왔던 삶이 다르고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정답일 수는 없지만, 자신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힌트로 생각하고 결국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정답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진 수습기자

■ 교내 입점기업탐방 인터뷰-부산컬러심리교육원

부산컬러심리교육원과의 만남

색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법



▶ 부산컬러심리교육원 사진



▶ 김서현 컬러테라피스트님

질문.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색을 통해 감정을 치유하고, 자신의 삶을 리드하는 김서현 컬러테라피스트입니다.

질문. 부산컬러심리교육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답변. 부산컬러심리교육원은 ‘색’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개설한 기업이며, 몸 마음 컬러 연구소도 함께 운영하는 교육과 상담을 하는 기관입니다. 2020년 1월에 동서대학교 전자정보관 2105호에 입주했습니다.

질문. 교내에 입점하신 이유 혹은 계기가 있나요?

답변. 외부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색(色)’이라는 정체성이 학교에 들어오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점했어요. 학교에 있다면 외부 기관에서도 신뢰와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연찮은 기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질문. 부산컬러심리교육원에서 주로 운영하는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컬러심리(컬러테라피), 퍼스널컬러진단, 취업 면접 토달 솔루션 총 3가지 교육 내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3가지를 꼽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컬러심리(컬러테라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컬러테라피란 색채심리학을 기반으로 색을 통해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과제를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3개의 색을 골라 당사자의 당면한 과제, 고민을 읽어냅니다. 테라피를 통해 일상의 불편한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데 대해 자신을 먼저 탐구하고 이해하며, 타인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스스로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컬러테라피는 일상의 상담 도구예요. 상담 공간도 일반적인 심리상담소에 가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러 오는 곳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질문. 두 번째, 퍼스널컬러진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쉽게 말해 자신에게 맞는 색을 찾아주는 거예요. 입술색을 찾기도 하고, 외모에 맞게 모습을 꾸꾸는 것도 도와줍니다. 사람은 시각에 가장 의존하여 타인을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입은 옷 색이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색을 조금만 써도 이미지가 달라져요.

질문. 퍼스널컬러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퍼스널컬러는 눈동자나 피부 색깔, 사람의 표정, 전체적인 체격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때문에 이에 맞춰 시중에 나와 있는 48색의 원단을 두고 ‘드레이프’라고 하죠. 얼굴 밑에 원단을 두고 색의 변화를 찾으며 진단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며 그 색과 체형에 맞춰 코디까지 해드립니다. 참고로, 퍼스널 컬러는 상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색은 하체로 입고 나를 표현하면 된답니다.

질문. 취업 면접 토달 솔루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업을 코앞인 구직자들에게 실전 면접을 진행하고, 모의실험처럼 촬영하여 개별 지도, 충고, 학습하며 면접 진행을 돕는 계획표입니다. 외적인 모습 가꾸기와 발표, 토론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1대 1 활동이죠. 면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취업 코디나 이터라 면접 질문 과정까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회사마다 고유한 색이 있고 부서에 맞는 때르르는 색이 있듯이 적절한 지도가 가능해요.

활동 과정 중에는 컬러미스트나 컬러향수를 직접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치유를 느끼는 체험 과정도 진행합니다.

질문. 동서대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혜택이 있나요?

답변. 동서대학교 학생들은 원래 금액보

다 20% 할인된 금액으로 활동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컬러심리(컬러테라피)는 1인 5만 원, 연인 상담 시 7만 원이고, 퍼스널컬러진단은 1인 5만 원(50분)이예요. 단체로 진행 시 2, 3명이 가능한데 1인 3만 원(30분)입니다. 아무래도 친구들과 함께 활동 과정을 진행하는 게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체(소모임) 진행 시 컬러테라피와 함께 한다면 5만 원으로 가격 조율도 가능해요. 취업 면접 토달 솔루션 프로그램은 1대 1 전문 지도로 10만 원입니다.

질문. 색을 다루는 일을 하시는데, 색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나요?

답변. 색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라고 하면, 여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근 남학생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이끌어가는 학생이고 삶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거예요.

이곳에 찾아와 상담하는 시간은 개인의 목을 감정을 흘러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색은 보는 것, 입는 것, 지속적으로 그 색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예요. 계속하는 것이 치유의 방안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답변. 1월에 개설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거의 7개월을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동서대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외부의 부산대학교나 동의대학교 등 일반 대학교 학생들은 많이 방문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이 있는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동서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 기관이 전해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워요.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숨은 기관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동서대학교 학생들에게 친근한 기관이 되고 싶습니다!
* 상담 예약, 카카오톡 ksh1962

김태향 기자 hyangsun3311@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드보라



▶ 군사 지도자로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드보라

▷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즐거이 헌신케 하소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노릇을 하다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성차별이 상당히 심했다. 그래도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성들은 단연 돋보였다. 그중 한 사람인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성 사사이자 여사제였다. 사사기(4:5)는 드보라에 관해 이렇게 전한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뱌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나 다른 사사들처럼 그녀도 군사

지도자로서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가나안인들을 물리친 데 공을 세운 사람은 드보라라 또 다른 군사 지도자 바락이었으나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엘이라는 여성이다. 그녀는 적군의 지도자인 시스라를 정막 안으로 유인하고, 그가 낮잠을 잘 때 정막의 말뚝으로 머리를 찢어 죽였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다. 시스라를 물리친 군사적 업적이 상세히 소개된다. 여기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작가 셀비 쿿트는 남북전쟁의 게타즈버그 전투를 다른 책의 제목을 그 구절에서 따 ‘별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지었다. 살로몽 드브레의 글인 ‘아엘, 드보라, 바락’(1835)에는 엄숙한 표정을 감당한 몸매의 아엘이 말뚝을 손에 들고 공상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나이 든 드보라는 두 손을 모아 기도드리는데, 바락은 검은색 갑옷 차림이다. 작곡가 헨델은 드보라에 관한 성담곡을 지었고, 현대 이탈리아의 작곡가 일데브란도 피체티는 ‘드보라와 아엘’이라는 가극을 작곡했다.

상세히 말하자면, 인류 역사는 남성과 여성의 공존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 열

매들은 남성에게 수렴되거나 통제되어왔다. 그러나 드보라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내리막길로 치닫는 혼돈의 사사 시대(주전 1225년경), 사해 남서쪽에 위치한 다불산에서 바락과 함께 가나안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성이다. 드보라는 모세와 비견될 정도의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다. 사사기 4-5장의 이야기와 출애굽기 14-15장은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고, 정면부 군사들을 깊은 물에 수장시킨 이야기(14장)와 모세와 이스라엘이 함께 승리를 찬양한 이른바 ‘모세의 노래(15장)’로 구성되었다. 사사기 4-5장의 짜임새 역시 마찬가지다. 철 병거 900대로 무장한 가나안 병력과의 전투 이야기(4장)와 이른바 드보라의 노래(5장)는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시다. 더욱이 이 두 노래(출애굽기 15장, 사사기 5장)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 본문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드보라 역시 예언자이면서 공동체의 지도자였다.

드보라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을 한 번은 이야기체로(4장), 한 번은 시로(5장) 각기 생각한 역사적 정황들을 보충한다. 사사 예측이 죽고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때문에 여호와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4:1-2) 드보라는 “야빈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아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5:6)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사기 4장은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주요한 인물로 소개한다. 드보라의 지휘를 받는 바락(4:1-10:4:12-16),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권위 아래에 있는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를 죽인 여성 아엘이 각기 한 쌍이다.(4:17-22)

히브리어 맛소라 본문에서는 드보라가 랍비트의 아내라는 사실보다 예언자였다가 것이 순서상 앞선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이 먼저 결혼을 하여 남편에 의해 존재감이 표시되었다. 더욱이 드보라의 특별한 점은 윗니엘이나 에후저렘(3:9,15),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3:10)라는 소명 양식은 생략된 반면에 다른 사사들에게는 소개되지 않은 직임을 드보라만 수행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뱌엘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았었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그녀

에게 올라왔다.(4:5) 다른 나머지 사사들은 재판하는 관리, 혹은 스승 같은 모범적인 인물에 상응하는 ‘사사’(공동 번역; 판관)와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사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더 컸다. 인간적인 약점도 여과없이 노출되었다. 반면 드보라는 한 절 짧은 묘사는(4:5)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했던 모세를 떠올리게 한 자이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유로운 통행조차 두려운 공포의 시대,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주도하는 질서에서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민사적인 문제와 다름을 해결하는 정의 관행을 위한 재판관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예언자로 살았다.(4:11,17) 드보라는 누구도 가히 정의 수행을 위해 일어서지 않는 암흑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지면서 ‘시대의 어른’으로 부름받았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드보라 네이버 블로그 ‘꽃자리’
조은빛 기자 임은성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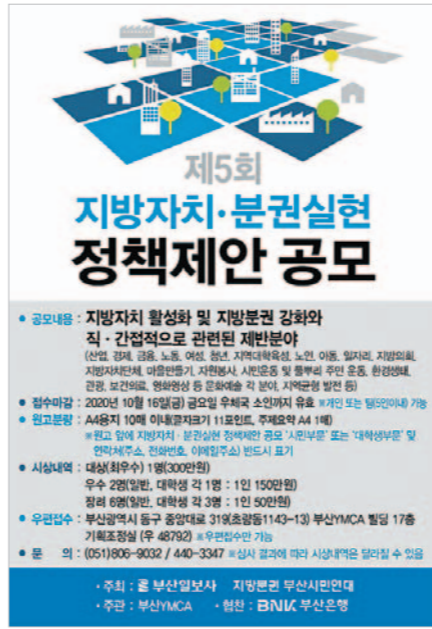
■ 2020년 서비스 R&D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10. 15. (목)
 • 공모대상 : 부산시민 누구나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2020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 접수기간 : ~2020. 10. 16. (금)
 • 공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 힘내라! 우리 응원 메시지 영상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10. 16. (금)
 • 공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UCC/영상



■ 제5회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제안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10. 16. (금)
 • 공모대상 : 대학생, 일반인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제1회 부산광역시 유튜브 영상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10. 19. (월)
 • 공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UCC/영상



■ 제1회 부산행사회연대기금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10. 21. (수)
 • 공모대상 : 제한없음, 부산소재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574돌 한글날 기념] 574자로 세종대왕께 편지 쓰기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10. 30. (금)
 • 공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문학/수기



■ [574돌 한글날 기념] 아름다운 우리말 달력 만들기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10. 30. (금)
 • 공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디자인



■ 배리어프리챌린지 영상/이미지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10. 31. (토)
 • 공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디자인, UCC/영상



■ 디지털 의료·차세대 재활복지 'MEDICAL HACK 2020'
 • 접수기간 : ~2020. 11. 02. (월)
 • 공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과학/공학, 게임/소프트웨어



■ 제1회 부산광역시 동구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11. 20. (금)
 • 공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UCC/영상



■ 경부선 철도 유희부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11. 30. (월)
 • 공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건축/건설

‘외국어랑 오탈자 찾고 상품 받자!’



이곳에 작성해 주세요!

167호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글날 특집 ‘외국어 및 오탈자 찾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몇 면에 어떤 외국어와 오탈자가 있는지 찾아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단, 기사의 제목, 기자 이메일, 4면의 축제와 공연, 6면의 죽비와 엄광산, 8면의 공모전과 대외활동은 제외됩니다.
 기사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 기고 받은 기사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유 명사와 같은 대체 불가능한 언어는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년,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2859-0974로 연락주세요.
 ※ 11월 8일(일)까지 퀴즈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
 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11월 9일(월)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
 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 락 처 : _____